

“도와주세요”

봉모원	02-313-7028
자재정사	031-356-9030
대정사	031-336-3108
목련의 집	031-534-8554
거북마을	031-952-4801
북향원	031-847-1466
굴암사	031-676-4221
신재동자원	031-876-2235
쌍암사	031-872-3472
행복한집	031-258-5727
동지 청소년의집	031-439-0222
부루나양로원	032-577-5108
순덕사	033-343-6264
소백새마을	033-762-9870
효심원 은빛마을	041-933-3905
석림사	041-741-0414
봉곡사	041-543-4004
정희사	042-257-1901
진어원	043-851-6013
보광정사	051-524-8932
다불어사는집	051-805-6400
정도마을안락원	053-852-7888
해드스집	054-482-1392
자비원	054-474-7700
본향원	054-435-8880
봉로사	054-430-1878
죽장사	054-481-2736
초암사	054-541-7863
육천사	055-672-0100
보리수마을	055-672-0078
자림원	055-391-4558
호산마을	061-373-8844
쌍봉양로원	061-373-9041
수덕의집	061-337-7600

불교계 영세복지시설 후원의 손길 품해

“왜 이렇게 춥지?” 월동걱정

“어서 오십시오.” “혹시 스님이세요?” “네, 스님입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16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산 보광정사 주지 지홍 스님은 택시기사다. 보광정사의 매달 운영비가 350만원이 넘는데, 신도들에게만 무조건

만들어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불법사 김광명화(54) 보살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기둥같이 없어 양로원 노인들이 모이는 안방 보일러를 끌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정을 아는지 할머니 세 명이 낫발을 켜다며 대청 마루에 웅기쭈기 모여있다.

정이다. 더구나 IMF이후 후원자들이 급격히 줄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뜸하다.

구미공단에 위치한 자비원은 공단 사정이 악화되면서 부쩍 후원금이 줄어들어, 스님이 연료비 마련을 위해 발을 동동 굴러고 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50여명이 모여사는 선재동자원은 예년에 비해 후원금이 25% 가량 줄어든 상태다.

이밖에 자비원, 보리수마을, 자림원 등 대부분의 영세 복지시설들은 재정의 대부분을 사찰 보시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경비마련에 고충이 큰 상태다. 교계의 일부 복지시설이 수용자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장애인, 무연고 노인, 고아 등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가습 아픈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부루나양로원 기름 아끼려 보일러 가동 줄여

선재동자원 올 후원금 예년보다 25% 감소

기밀 수만은 없어 스님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이들 고사리 손에 공책과 연필을 사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요새는 벌어도 시원치 않다.

5일 인천시 가좌동 부루나 양로원. “방안이 왜 이리 춥지?” “어머니, 죄송해요...” 양로원 노인들의 짐짓을

추위가 본격 시작되는 12월, 현재 정식 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복지시설 외에, 불교계가 운영하는 조건부 신 고시설과, 민간이 복지시설은 총 36 곳. 이들 시설 대부분이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후원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겨울나기가 막대한 실

‘회당사상’... 심포지엄

위덕대, 12일 교내서 개최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가 회당대중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학술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회당대중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위덕대학교 불행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교내 인문사회과학관 중강당에서 ‘회당사상과 새 불교운동’을 주제로 회당대중사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회당 구도소설 및 회당논설집 출판기념회’와 ‘심인진리의 대중화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박원구기자

지역시니어클럽 심사

경주 신라문화원 지정

신라문화원이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시니어클럽에 지정됐다

신라문화원은 11월 22일 지역시니어클럽 3차 대상자 심사에서 최종 선정돼 총 1억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박원구기자

청담사상연구소 17일 창립

진주산업대, 생애·사상 학술세미나도

청담대중사 탄신 100주기를 맞아 대학에 스님의 마음사상과 문학을 조명하는 연구소가 설립된다.

진주산업대학교(총장 정해주)는 17일 오후 2시 종실관에서 대학부설 청담사상연구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해사 스님(도선사 주지) 목장배 총장(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 ‘청담대중사의 생애’ ‘청담대중사의 마음사상’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청담사상연구소 소장 김기원 교수는 앞으로 청담 마음학과 참회정

신 마음문학에 대한 연구발표 및 학술연구자 발간, 학술대회 및 연수회 개최 및 청담 마음론 발표회 개최, 장학사업, 국내외 사료발굴 및 출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산업대 전신인 진주공립공업학교 12회 졸업생인 청담스님은 1924년 재학시절 3 1 진주학생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으며, ‘학우단’을 조직, 일본말 안쓰기, 교복안입기, 우 리글쓰기 등 무저항 학생운동을 전개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카운슬러대학 개강

영남불교대, 상담인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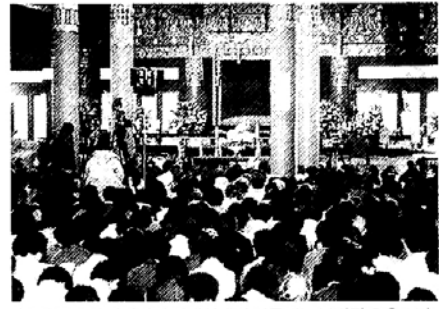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은 5일 25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불교카운슬러대학’을 개강했다.

불교카운슬러대학은 불교 전문 상담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영남불교대학 3층 대

법당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3개월 과정으로 마련된 불교카운슬러대학은 경력대 철학과 김윤동교수의 ‘인간과 행복의 조건’, 대한가족복지협회 청소년 상담실 성교육전문 이재경씨의 ‘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 전 여성안전화 공동대표 최정희씨의 ‘상담전화의 실제’ 등 대학교수,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강의가 진행된다.

박원구기자



4일 통도사 화엄산림 입재식에서 법문하는 부방장 조우스님.

순천 조계산에 불교테마공원

시, 188억 들여 각 문화재 대대적 보수·복원

순천 조계산일대가 불교테마공원으로 변모한다.

순천시는 송광사와 선암사가 위치해 있는 조계산을 불교를 테마로 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각종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순천시는 2일 총 1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송광사와 선암사를 비롯해 조계산 일원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에 대한 보수 및 복원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보사찰 송광사에는 전시관, 불교영상관과 세미나실, 불교자료실 등을 갖춘 불교문화유산관을 건립하고 기존 진입로 외에 오솔길을 이용한 친환경 진입로 2.4km를 개설한다. 또 태고종림 선암사에는 한국 불교에 대한 교육과 영산재 등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불교전통문화대학과 책방, 탕화 등을 전시할 불교미술관 및 야생차 만들기 체험장을 건립한다.

순천시 문화홍보실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로 건립할 불교문화유산관, 불교전통문화대학, 불교영상미술관, 야생차 체험장 등의 설계에 들어가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을 끝낼 계획”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조계산 일대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영기자



4일 개막, 1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속박물관에서 전시된다.

‘...깨달음展’ 전남 광주서도 호평

불교계와 미술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근현대 대표작가들의 불교사상을 거지로 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있는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이 개막했다.

이러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은 “불교미술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짐작케하는 훌륭한 전시가 열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불교사무원 부회장 광민 무각사주지는 “아름다움과 깨달음의 조화를 만끽하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려 기쁘다”고 축하했다.

주홍익 광주지사장

통도사 화엄산림 입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봉은 4일 설법전에서 화엄산림 법회 입재식을 봉행하고 30일 간의 화엄경 법문을

참 제자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자 유스러운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천미희기자

가야불교문화원 14일 첫 삽

건평 4백평...전시실·연구실·조사전 갖춰

가야불교와 가야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조망하는 가야불교문화원이 14일 김해시 동상동 부지에서 기공식을 갖는다.

건평 4백 평 규모의 지상 4층 건물로 김해 동상동 토지구획 정리구간에 건립될 가야불교문화원은 가야불교유물 전시실, 청소년상담 및 심터, 연구실, 다목적 세미나실, 장유화상을 모신 조사전 등을 갖추게 된다.

가야불교문화원 건립을 위해 결성된 가야불교문화원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대상)는 지방비 1억 3천 만원을 비롯 국고보조금과 김해불교사찰

연합회 재정 2억 등을 투입해 2004년 초 완공을 목표로 불사를 시작했다. 가야불교문화원이 완공되면 가야 문화 복원사업, 가야문화 학술연구 및 간행 교재 기관지 발행,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국제문화 교류,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가야문화의 정수인 불교문화를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

가야문화원 건립추진위원회는 14일 김해불교사찰연합회(회장 덕일)와 공동주최로 불우이웃돕기 및 제 8회 찬불가의 함께 하는 법회를 연다. 천미희기자

송광사 대흥사등 전남지역 5개寺

주말 산사체험프로그램 상설운영

전남 5개 사찰에서 주말 산사체험 프로그램이 상설 운영된다.

전라남도도는 순천 송광사를 비롯해 해남 대흥사, 미황사, 구례 화엄사, 장성 백양사 등 5개 사찰의 협조를 얻어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7일부터 상설화했다.

송광사는 사찰체함과 함께 순천만 철새탐조 프로그램을 포함시켰고, 미황사는 달마산 산행과 땅끝전망대 관람, 대흥사는 운선도 생가 탐방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유명해진 천일식당에서의 점심식사

를 특화했다. 또 백양사는 선체조, 다도체험, 등산 등 산사의 정취를 느끼는데 중점을 뒀고, 화엄사는 사찰풍수기행과 인근 산동면의 온천관광을 프로그램에 삼입했다.

해남 미황사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전남도청 앞에서 출발하며, 송광사와 화엄사는 첫째·셋째 주 토요일, 둘째·네째주는 대흥사 화엄사·미황사 등으로 갈 수 있다.

한편 전남도는 산사체험사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062607-3332) 박병영기자

익산 쌍릉 월말 발굴조사

주차장등 건설, 공원으로

익산 미륵사의 창건자인 백제 30대 무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국가사적 87호 ‘쌍릉’(전북 익산 석왕동)의 발굴 조사가 12월 말경 시작된다.

익산 쌍릉은 지름 30m 높이 5m의

대요묘와 지름 24m 높이 3.5m의 소요묘로 구성돼 있고, 각종 문헌에는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이라고 전해지고 입증되지 못한 상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쌍릉 주변 유물 조사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등을 건설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유신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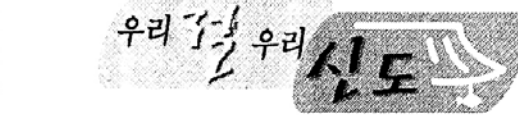


무저렴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화엄회원들은 정각사의 대소사를 책임진다. 사진은 초하루 법회에 참석한 화엄회 임원들.

결에 누군가 있어도 마음속 빈 공간이 일찌니 기운을 감동하게 하는 계절.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계절에 따뜻한 정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다. 산본 정각사(주지 정엄) 화엄회(회장 전숙현) 임원들이 그들이다.

화엄회 임원들은 사찰 대소사는 물론이고 각종 봉사활동에 열성이다. 기획사무부, 사내봉사부, 대외봉사부 등 시작해 도서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등 그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중 임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은 봉사활동. 화엄회의 발



절일·봉사 닦치는 대로...유치원 계획

기름과 들기름 판매가 대부분이지만 노동간의 상호상생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한달에 3번 산본에 있는 가 야복지관을 찾아 고아, 장애인, 노인

들을 보살핀다. 처음에는 입안이 더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나노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긍심에 힘을 낸다.

봉사활동은 신심이 기본이지만 재정도 무시하지 못한다.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이외에 양병 무왕사, 죽림사와 자매결연을 맺어, 그 사찰에 다니는 신도들이 농사지를 것을 판매한 이익금으로 충당한다. 주로 참

원성 스님의 그림을 보기 위해 정각사에 들렀다가 화엄회 회원이 되었다. 경기도 퇴촌에서 산본 정각사까지 왕복 4시간 거리지만 한달에 10일 이상은 절을 찾는다. 각종 재일과 수요일 불교경전강의, 금요일 찬불가 합창단 모임 등 가사일도 바쁘지만 절에 나와 열심히 불법을 배운다. 제철(43, 무량심) 법당관리부장은 일 본에서 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그 인연으로 한국까지 오게 됐다. 그 외에도 많은 회원들이 절을 내 집처럼 생각한다.

화엄회는 올 3월에 발족했다. 발족당시 30여명이던 회원은 지금 60여명이 넘는다. 안으로는 삼보를 공경하고 정각사를 내호하여 불자들의 뜻을 모아 보현행원의 정사를 구현한다는 것이 결성 취지다.

회원들은 주지스님의 뜻을 좇아 29일 ‘삼존불 봉안 및 민족통일 기원 법회·송년 국악대축’이 끝나면 내년부터 유치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숙현 회장을 비롯, 정해은 총무, 정경월 기획사무부장, 김정연 사내

산본 정각사 화엄회 임원들

정엄스님 정각사 주지

주년의말

정엄스님 정각사 주지



화엄회는 법당 창소부터 관리 등 사내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경로잔치, 복지관 자원봉사 등 정각사의 최정에 부대입니다.

절에 사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는 등 헌신적인 모습에 감사를 따릅니다. 정각사 주지 소임을 맡은 지 겨우 1년 정도 됐습니다만 회원들이 있었기에 정각사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지금까지 너무 앞서가 지도 말고 너무 뒤쳐지지도 말고 늘 함께 조금씩 앞으로 전진했으면 합니다.

봉사부장, 안정희 송순분 대외봉사부장, 제철 법당관리부장, 임재현 홍보부장, 김현자 도서부장, 김국희 어린이부장 등 화엄회 회원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다.